

## 서울일보

### 강북, 추경안 등 확정 임시회 마무리

제2차 추경예산 확정안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등 처리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6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등을 확정하여 제144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서 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지난 3일 예산안에 걸친 촉조 심사를 통해 시설비 등 사업성이 낮은 사업예산 2건, 7천 5백 62만원을 삭감하고,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비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6건, 7천 5백 82만원을 증액·심사하는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한 강북구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위원회를 행정보건위 위원회로, 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는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남수 기자 pns@seoulibo.net

## 전국매일

### 제1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회 추경안 등 확정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등을 확정하며 제14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지난 3일 장시간에 걸친 촉조심사를 통해 시설비 등 사업성이 낮은 사업예산 2건, 7,562만원을 삭감하고,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비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6건, 7,562만원을 증액·심사하는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위원회'를 '행정보건위원회'로, '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는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문미기자 (kym@jeonmae.co.kr)

## 서울포스트

### 한기위 국악한마당 참석



강북구의회 유근성 의장은 2일 오후 7시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문화원 주최로 열린 한기위 국악한마당에 참석하여 구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한기위의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강북신문



강북구의회 예결특위 구본승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부지를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현장방문 실시

### 강북구의회 예결특위 위원들, 예산안 심사위에 현장 실사

지난 1일 오후 4시경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승) 위원들은 강북구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대상 부지에 방문해 예산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했다.

강북구 미아동 700-149필지 미아뉴타운 8구역내에 위치한 이곳 부지는 강북구가 1,200여평에 달하는 토지매입 계약체결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킨 계약금 13억원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벌인 것.

특히 의원들은 복합청사라고 해도 대규모의 부지 매입과 총 130억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에 대한 의문 때문에 예산심의시 논란을 겪다가 현장방문을 통해 둘러보기로 한 것이다.

이 삼각산동 복합청사는 이전에 토지매입 계약금 13억원을 편성해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예산인 117억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내년 상반기 경증도급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본승 위원장은 "강북구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예산을 추경에 올릴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건축비도 30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부지매입 조건을 찾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립부지는 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돼 있는 상태로 계약금 예산을 편성하고 9월경 조합측과 구청측에서 새로운 감정평가를 펼쳐 적정한 매입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 ▶ 일본 농아인 게이트볼 선수 강북구의회 방문

2010년 한·일 농아인 게이트볼 친선교류 대회에 참가 차 내방한 일본 선수단이 지난 3일 11시 30분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를 방문하였다.

2박 3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를 마무리 한 일본 선수단은 주최측인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강북구지부 관계자와 함께 강북구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 등 시설을 견학하고 유군성 의장과 환담을 나눴다.

#### 강북신문



#### 일본 농아인 게이트볼 선수 강북구의회 방문

2010년 한·일 농아인 게이트볼 친선교류 대회에 참가 차 내방한 일본 선수단이 9월3일 오전 11시 30분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를 방문하였다. 2박 3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를 마무리 한 일본 선수단은 주최측인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강북구지부 관계자와 함께 강북구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 등 시설을 견학하고 유군성 의장과 환담을 나눴다.

# 비속 우이천·근린공원 세곳·더 파인트리 방문

##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동행취재, 임시회 회기중 민원현장으로 달려가

제144회 강북구의회(의장 윤군성) 임시회 회기중인 7월 10일 10시 기자는 건설위원회(위원장 박삼열)의 현장방문에 따라나섰다.

### ◆ 변창교 일 노상방뇨 해결은 확장실 설치로

의원들이 비가 내리면서 가운데 의회 향사를 떠나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우이천 생활학교 앞에 빼드로민장이었다. 시공사로부터 우이천의 생태하천 복원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의원들은 우이천에 환경살이 제대로 없어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와 심각하다며 특히 변창교 및 난간을 끊 하수구가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밑에 거리를 달아 환하게 밟았는 것도 빙그랭위를 막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조치를 주문했다.

우이천변에서 가까운 번1동 마을 안 새길공원으로 걸어서 이동한 의원들은 백양암 위정원과 석연원 모양의 울타리가 치진 조그만 모래밭을 기리기며 지적하는 문제에 귀를 기울였다.

박 위원장은 모래밭에서 고양이들이 밤에 풍을 써서 앞에 풍끈해 위생상 좋지 않다는 것과 색연필 울타리가 높은 편에 청소년을 상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 ◆ 구더기 무서워 잘 못 닦아서야

그 다음 차를 타고 이동한 곳은 수유동 행정복지국 입구인 삼각장터였다. 기다리고 있던 김정중 시의원이 구의원들을 반기며 노숙인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해방 전우회가 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4층에서 6층으로 증원된 단속반이 노숙인들을 쫓아내고 있지만 단속할 때 뿐이라며 24시간 상주하며 단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의 박귀원 공원녹지과장은 해전전우회가 지역의 70~80개 마을공원 감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삼각장공원은 집중해서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 다음 코스로 이동한 수유3동의 미루나루공원에도 마찬가지였다.

구모는 삼각장공원보다 월씬 놓았지만 미루나루공원의 하수구에는 있는 정자와 한 노숙인이 벤치에 걸터앉아 이를 고부린 채 낮장을 차고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술병이 팔랑고 있었는데, 의원들이 정자의 지붕을 걷어내든가 아예 뛰어온 방법도 차진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았다.

구단기 부서워 잘 못 닦는 죄이 되는 패미 되는 것이다.

그렇자 허점 짚시간이 되어 근처의 풍녀나루에서 갈비탕으로 짜장을 해결한 원동민은 구의회에 잠시 돌아가 휴식을 취한 후 우이동 더 퍼 인트리 공사현장으로 출발했다.

### ◆ 더 파인트리 구민들 위한 체육시설 왜 없나?

오후 1시 30분 현장사무소에 도착해 시행사와 시장관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민원을 제기했던 인근 160세대의 주민들과는

4층에서 6층으로 증원된

단속반이 노숙인들을 쫓아내고 있지만 단속할 때

뿐이라며 24시간 상주하며

단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의 관계공무원에게 건

축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을 변경한 시장에 대해 자세한 설명

을 요구했다. 시공사측은 초호화는

아니고 일반 콘도보다 약간 등급이 높은 정도이고, 모두 327세대 실증 최고급은 56세, 나머지 276개가 일반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밖으로 나와 악마다인

길을 올라갔다. 현장의 한 가운데에

지점인 104동 부근에서 사방을 살펴본

후

모든 일정을 마감하고 차에 올랐다. 그 사이 잠시 그쳤던 비가 쏟아 지기 시작했다.

〈현상수 기자 sunghsu@heranm.net〉



▲ 수유3동 미루나루공원의 청자에 한 노숙인이 몸을 고부린 채 낮장을 차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서울포스트 미아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된다

내년초 설계 3월정도 공사 제2차 건설위원회서 밝혀



“성신여대 문정캠퍼스와 미아역에서 사이에 걸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박문수의원의 주

장에 대해 내년 3월경 공사를 마치고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강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문수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안한 성신여대 주변 걸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공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지난 본회의에서 하슬승 행정관

국회장은 성신여대 문정캠퍼스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걸고 싶은 거리 조성 부분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강북구청 홍역 힐 도시관리국장은 미아역 주변 걸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답변으로 현장조사 후 성신여대 관계자와 의견을 나눈 결과 학교 측에서도 “학교가 개강하면 구형과 상의해 려겠다”면서 10월 정도까지는 이를 마련해서 내년 예산공사비와 설계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문수 의원은 “구청에서 예산을 갖고 접근한다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적극성과 열의를 다해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동골프연습장을 방문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태풍으로 인해 빗겨진 그물망을 살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당부했다.

## 강북구의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 제144회 임시회 중 현장 방문해 현안살펴

제144회 임시회가 진행중인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9월2일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의정활동을 가졌다.

먼저 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실)는 2일 강북구보건소와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이인영 보건소장으로부

터 현황을 듣고 강북구민을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3일엔 살각산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 구민들을 위한 문화강좌에 에써울 것을 당부하고 지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오동골프장을 방문해 현황을 둘러보고 신속한 피

해복구에 나서 회원과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도 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는 2일 재활용 선별장과 오렌쓰레기回收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콩은 날씨에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과 경영미화원들을 격려했다. 3일엔 우이현 석면제방을 둘러보며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우이동 그린파크부지에 건설중인 건축현장을 둘러보며 현안을 점검하기도 했다.



오동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한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재활용 처리시설을 둘러보며 강북구의 청소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이현 석면석재 사용' 관련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 촉구



구본승 강북구의원(민주노동당)은 8월 30일 오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우이현 석면석재 사용 관련 연락보도에 대한 강북구청 차원의 조

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제기로 구본승 구의원과 강북구 도봉구 단체는 우이현 석면 석재 사용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현장 실사까지 마련해 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이현 쌍한교(강북쪽 옆), 수유교 인근의 우이현 자연석 조경공사 석재에서 채취한 시료 8개 중 7개에서 1급 밀암 풀질인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고, 쌍한교에서부터 월계2교까지의 직선거리 3.1km에 걸쳐 석면 광맥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석재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구본승 구의원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진행된 강북구청 발주 우이현 자연석 공사 석재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수년 동안 주민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되었다. 강북구청은 즉각 사실 확인을 하고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예산결산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강북구의회…삼각산동 신청사 부지매입비 지적 나서



구본승 예산결산위원장(사진 좌)을 비롯한 위원들이 삼각산동 신청사 부지에서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강북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지난 1일 강북구 미아동 700-1과 49필지 미아뉴타운 8구역 내에 위치한 삼각산동 신청사 부지 미아동 700-1 외 49필지를 현장 방문했다.

대규모의 부지 매입과 총 130억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 예산심의 시 논란을 겪다가 현장방문을 통해 현황을 둘러보기로 한 것.

이곳은 9월 계약금 10%(13억원)를 지급하고 11월 잔액 예산편성(117억 원)하고 내년 상반기 중도금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로 계획되어 있다.

현장방문을 한 예산결산 위원들은 3804m<sup>2</sup>(약 1200평)의 부지는 현 청사 못지 않은 크기의 부지이며 삼각산 동청사를 비롯한 구민들에게 필요한

복합청사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활용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아뉴타운 제8구역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강북구가 2007년 미아뉴타운 제8구역 조합 축과 험의 후 구에서 매입하기로 한 것이며 1200여평 삼각산동 복합청

사 부지(미아동 700-1 외 49필지)로 구의 매입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구본승 예산결산위원장은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평당 약 1.120만원의 부지 매입비가 높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부지 매입에 대한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의 절차가 있지만 이백균 의원은 “좀 더 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이달에 있을 감정평가 후 협의된 매입금액을 주시하겠다고 해 구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제144회 임시회 중 오동골프장 재활용선별장 등 현장 방문으로 현안살펴

# 강북구의회 회기중 현장 의정활동



오동골프연습장을 방문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태풍으로 인해 벗겨진 그물망을 살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당부했다.

제144회 임시회가 진행중인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9월2일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의정활동을 기졌다.

먼저 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2일 강북구보건소와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이인영 보건소장으로부터 현황을 듣고 강북구민을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3일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 구민들을 위한 문화강좌에 애써줄 것을 당부하고 지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오동골프장을 방문해 현황을 들리



번동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한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재활용 처리시설을 둘러보며 강북구의 청소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고 신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회원과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일)는 2일 재활용 선별장과 오현쓰레기적환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곳은 날씨에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했고, 3일엔 우이천 석면제방을 둘러보며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우이동 그린카파크부지에 건설중인 건축현장을 둘러보며 현안을 점검하기도 했다.